

[시티 & 피쳐]

■ '오이데이(5월2일)' 맞는 구례 '취청오이' 농가

'농산물 생일' 만드니 매출도 "깡충"

삼겹살데이(3월3일)·구구데이(9월9일) 등 제정... 수입 파고 넘어

오전 내내 내리치는 햇볕으로 구례군 토지연 구산리 오이 재배 비닐 하우스는 이미 짙게 익어...

늘었다. 뒤를 이어 '삼겹살데이'(3월 3일), '오이데이'(5월 2일), '구구데이'(9월 9일), '사과데이'(10월 24일) 등 각종 농축산물의 기념일이 생겨난 것도 보람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구례군 토지연 구산리 오이 재배 하우스에서 이문식씨 부부가 부지런히 오이를 따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연 매출 30%나 급증

는 '오이데이'(5월 2일) 행사 때문이다. '국민들이 매년 오이데이를 기억해주고, 우리 오이를 찾아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이데이' 행사를 처음 시작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당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오이시험장 장(長)이었던 김경진(52)씨가 "우리 농산물의 생일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부터다.

'화이트데이', 로즈데이 등 매월 14일만 되면 물 건너온 기념일을 챙기느라 바빠진단 정작 우리 농작물을 위한 날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오이 소비를 늘리고, 안전한 먹거리로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던 '오이데이' 창설 의도는 그대로 적중했다. 연간 매출이 4년 사이에 30%나

특히 전국 오이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구례산 '취청오이'는 25~30cm의 크기에 속이 짙고 과즙이 풍부해 도시 주부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취청오이'가 생산과 판매에서 모두 전국 1위를 우뚝 서기 위해 극복해야 할 난관은 아직 많다. 첫째는 판로다. 현지 공판장이 없

농가당 소득 5천만원

기 때문에 서울이나 광주 같은 대도시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생산비·인건비에다 운송비 부담까지 따라고 있다. 이에 따라 1박스(10kg)에 1만5천원 수준에 거래되지만 농민들 손에는 7천500원정도로 쥐어지는 실

정이었다. 오이 가공 식품 개발도 시급한 문제였다. 오이 생산이 12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이뤄지는 등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7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농가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임근철(55)오이시험장장은 "현재 오이시험장에서 오이 팍·비누·오이파를 등 오이를 이용한 가공품 연구가 한창 진행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농민들의 기대가 커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작목반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다. "곧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서다. 유기농 재배·무

농약 재배 등으로 친환경 오이 생산을 늘리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조운송비 절감 대책 절실

금씩 나아지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4번째 생일을 맞는 오이데이 행사는 2일 오전 9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이 배부(선착순 5천 200명) ▲오이 주스 무료 시음 ▲오이 마사지 팍 무료 체험 ▲오이 가공제품 전시 등이 있게 된다.

/구례=김동호·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또문화예술 인큐베이팅 사업'

광주시, 6월부터 본격 시행... 2010년까지 95억 투입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아시아 문화예술 인큐베이팅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모두 95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문화예술인 거주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문화예술인 교류활동 및 네트워킹 구축 ▲아시아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에 나선다. 아시아 문화예술인 거주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미술·장인·저널리스트 등 외국 작가 20여명을 초청해 광주에 거주하면서 자유로운 창작 및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시아문화예술인 교류활동 및 네트워킹 구축사업은 해외 예술단체와

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 국제회의 등 개최, 지역 예술단체의 아시아 국가 방문 공연 등을 돕게 된다. 시는 또 아시아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해 아시아권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기획·컨설팅하고 2010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시는 한편 이들 3개 아시아문화예술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할 주관단체를 공모키로 했다. 오는 19일까지 광주시 문화정책혁신(062-613-3442)로 접수하면, 선정위원회를 통해 주관단체를 선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금남로 '지구의 날'

비로 연기됐던 '지구의 날'(4월22일) 행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남로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3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메오지와 수수깡·찰흙 등으로 '금남로에 있었던'을 만들고, 자전거 대형전 등을 하는 등 '치없는 거리' 금남로의 하루를 만끽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비로 연기됐던 '지구의 날'(4월22일) 행사가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남로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3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메오지와 수수깡·찰흙 등으로 '금남로에 있었던'을 만들고, 자전거 대형전 등을 하는 등 '치없는 거리' 금남로의 하루를 만끽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부터 '오존 예·경보제'

광주시는 1일부터 오는 8월까지 4개월 동안 '오존 예·경보제'를 시행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등에 '오존경보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시는 또 총중량·농성동 등 5개소에 운영중인 대기오염측정소를 통해 확보한 대기 자료를 분석해 매일 오존농도를 예보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생활안내 (Life Safety) and 신 고 (New High). It lists various servic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25년 고객사랑!' (25 Years of Customer Love!) for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It features a large graphic of a lemon and text promoting 25 years of service and special offers.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listings for various properties, including land,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Each listing includes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